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22) 사상(四相), 혹은 인간의 '우상' 들에 대하여

속담에 "제 눈에 안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별로 매력도 없는 사람을...

식의 '기관', '대상', '내용'이 그것인데, 불교는 이들을 각각 육근(六根), 육진(六塵), 육식(六識), 그리고 이들을 통틀어 18계(界)라 부릅니다.

무주위체(無住爲體) 주관적 안목이 그 사람의 토대(住)입니다. <금강경>은 이 토대를 경계화하고 되풀이 되풀이 타이르고 있습니다.

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성계와 무학의 사례를 들면서, "꽤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혜능도 <금강경 구결>의 서문 첫머리에서 "무주위체(無住爲體)"라고 했습니다. 번역하자면, 즉 '네 토대를 허무는 것이 불도의 관건'이란 선언입니다.

우리는 각자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환상의 공작지는 사랑에 빠진 연인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빠져 있는 공통의 늪입니다.

자아의 토대(住)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 필드에 열여덟 요소가 있습니다. 감각과 인

밝히고자 한 적이 있고, <대승기신론> 또한 경분(見分)과 상분(相分)의 상호 의존과 동시 성립을 말하고 있다는 것만 우선 귀띔해 둡니다.

물고기 집, 지옥의 고름, 천상의 감로수 우리가 보는 세계는 자아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관심과 시선이 다르다면 세계는 전혀 다르게 보이겠지요. <법화경>은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

가장 알기 쉬운 것이 1) 동굴의 우상(the idol of cave)입니다. 인간은 자기 가 만든 주관적 환상의 세계 속에 갇혀 산다는 것이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호나 관점이 보편적이고 건강하며 합리적이고 전체적이라는 무의식적 착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이 점은 알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이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턱없는 인류의 오만도 그런 예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3) 시장의 우상(the idol of market)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쓰는 언어가 대상과 일치할 것이라는 소박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언어는 우리가 '사실'에서 읽은 '이미지'에 붙인 '이름표' 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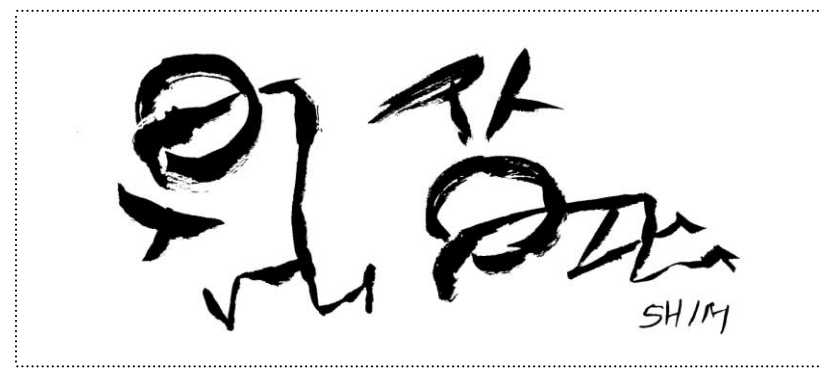
이 바로 언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단적 개인적 우상을 타파하는 노력

마지막으로 4) 극장의 우상(the idol of theater)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자의 권위를 승인하는 맹목성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극장 무대에 왕이나 제사장이 홀을 들고 오가는 장면에서 연상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재래의 문화적 습관이나 전통에 의해 대상에 대한 일정한 태도와 가치관념을 주입받습니다.

어쩌나, 다들 눈에 두터운 콩깍지가 씌었으니

기 물이 있다. 이 물은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 모든 지각 있는 생명체에게 똑 같이 보일 것인가. 아니다. 물고기에게는 '집'으로 보일 것이고, 지옥에서는 '고름'으로 보일 것이며, 천상에서는 '감로수'로 보일 것이다. 물은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것으로 보이겠지만, 화학자에게는 'H₂O'로 보일 것이고, 경제학자에게는 '공짜'라는 뜻에서 '비경제적'의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환상의 공작지는 사랑에 빠진 연인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빠져 있는 공통의 늪입니다. 우리는 늘 돈이 되는데는 돼지만 보이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좇아다니며, 저 유리한 대로 세상을 해석하며, 그 밖에 관심이 없는 것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특징을 발견하기는 쉬운데 자신에게서 그것을 깨닫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2) 종족의 우상(the idol of tribe)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공통된 생물학적 특성으로 하여 갖게 된 우상을 가리킵니다. 지금 말한 대로, 세계가 인간이 보는 대로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도 여기서 생

주장자 따라...

④5 무학대사의 '지수화풍'



조태호

Comic strip panels with dialogue. Characters discuss Buddhist concepts like 'Zishu' and 'Huafeng' in a humorous way. Panels include characters like Taegoo, Naengseon, and others.

네티즌 교리문답

깨달음은 삼매 속에서 가능한가요?

깨달음은 삼매 속에서 가능한가요? 아니면 삼매에서 나와야만 가능한 건가요? 네티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ID 확인)

답1: 삼매 속에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삼매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합니다. 삼매라 하는 것은 무엇 하나에 골몰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 독서삼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매라는 것은 무엇 한 가지에 골몰하여 있는 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깨달으신 분들의 일화를 보면 일상 중에서 문득 깨닫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어떤 분은 좌선 중에 자신의 방귀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방귀를 끼어 보셨겠지만 방귀를 끼려면 아랫배에다가 의도적으로 힘을 주거나 아랫배에 저절로 힘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삼매에 들어 있다면 방귀소리를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답2: 깨달음은 삼매 안에서 가능합니다. 불교의 삼매란 지(止)와 관(觀)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선가에서는 성성적(惺惺寂寂)이라 표현하며 쌍쌍(雙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고요하고 비추는 그 삼매 속에서 바로 깨닫는 것이 깨닫기 위해 다시 삼매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삼매에 대한 오해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삼매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뒤에 삼매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성적(惺惺)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된 각안(覺眼)에 다시 삼매에 들고 나가는 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둠중정이 그대로 밝게 관해서 집중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물론 삼매 없이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도 삼매를 떠나지 않고 부처님이 활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 through 15 indicating starting points for clues.

상식퍼즐

- 1. 강원 화천군과 양구군에 걸쳐 있는 호수 2. 얼마쯤 믿으면서 한편으로 의심함 3. 탐과 비석 4. 하루하루마다 5.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말로 좋은 일에 좋은 일이 겹침을 뜻함 6. 팔팔 피질부의 모세 혈관이 실제로 만든 공 모양을 이룬 작은 조직체. 연어인 병역비리에 이용된 질병이 '○○신염'.

- 1. 경남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가야시대의 석탑, 수로왕비 허황옥이 서역 아유타국에서 바다를 건너올 때 싣고 온 것으로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음 7. 호수기라는 의미로, 춘천을 일컫는 말. '○○의 도시' 8. 함께 도를 닦는 벗 9. 환웅(桓雄)이 천부인 3개와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 이곳을 ○○라 불렀음 10. 이로 맺은 남매 11. 비상시에 대비해 모아둔 돈 12. 한마음 한몸 13. 서투 따위를 따로 붙임 14. 일터나 모임 따위에서의 뒷자리 15. 뱀을 소재로 하여 원시적인 생명력에 대한 향수를 노래한 서정주의 시.

무학대사(1327~1405): 고려말 조선초의 스님. 조선태조의 환양전도를 도움. 경남 합천출생. 원나라에서 구법수학후 귀국. 조선 개국후 왕사가되어 회암사에 거주. 금강산에서 입적